

March 28 열둘 중의 하나, 가룟 유다

• 마태복음 26:14-16

유다에게는 돌아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적으로도 명시적으로도 유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적들과 은밀히 흥정하고(마26:14-16) 실행함으로써(마 26:47-50) 멸망의 자식이요(요17:12),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요 6:70).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았습니다(마 26:15).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 주고 돈을 받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소견대로 판단하고 처분한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과 기대와 이상과는 다른 존재라고 결론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3년을 동고동락했고, 열두 제자 중 하나였지만 유다는 자기 정체성도,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의 정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만의 예수님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이상을 투영한 우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제자였으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드러내셨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유다가 판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뉘우치며 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는 결국 믿음도 돈도 생명도 모두 잃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마 26:14).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열둘 중의 하나’였습니다. 유다도 처음엔 예수님의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과거의 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가 누구인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선생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도 언젠가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❶ 그동안 나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❷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